진실을 경험하라 -밀레
MILLET

光州日報

우암학원 창학65주년
WCC 세계적인 전문대학 선정!
전남과학대학교
CHUNNAN TECHNO UNIVERSITY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2－8111 kwangju.co.kr 제19828호 1판 (음력 8월 29일) 2014년 9월 22일 월요일

광주 軍시설 이전 줄줄이 '뒷걸음질'

강운태 시장 때 선심성 발표 의혹 … 대책 마련 시급

민선 6기 들어 광주 도심 팽창에 따라 추진돼 온 군(軍)시설 이전 사업들이 줄줄이 지연·중단되면서 조속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군시설 이전 사업은 광주시민의 재산권 확대는 물론 시민을 위한 대규모의 도심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등 광주의 발전을 위해서는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관련기사 3면〉

21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민선 5기 때부터 추진중인 광주 도심 내 군 부대 이전 사업은 크게 광산구 평동 군 훈련장과 광산구 도호·신촌동 일원 군 공항, 북구 31사단, 무등산 정상 방공포대, 서구 옛 국군광주병원, 옛 기무부대 부지 교환 등 5곳으로 나뉜다.

이들 사업 중 평동 군 훈련장 이전과 군 공항을 제외하고는 모두 민선 5기 끝자락인 올 2～4월 집중적으로 발표됐다. 이 때문에 당시 6·4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선심성 발표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그런데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

민선 6기 들어 계획대로 추진중인 사업은 국방부 소유인 옛 국군광주병원과 옛 기무부대, 마륵·중앙공원 일부 부지와 광주시 소유의 광주공항 인근 서창동 양묘장 부지를 양여·교환하기로 한 사업과 군 공항 이전 뿐이기 때문이다.

특히 인근 지역민의 관심이 높은 북구 31사단 이전 계획은 지연 또는 무산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지역민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강운태 전 광주시장은 당시 김관진 국방부 장관과 구두로 31사단 이전에 합의하고 국방부로 공식문서를 보냈다고 밝혔으나 강 전 시장이 재선에 실패한데다 김 장관도 지난 6월 국가안보실장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사실상 없던 일이 되는 분위기다.

광주 시민의 숙원인 무등산 정상 군부대 이전 사업도 진전은커녕 후퇴하고 있다. 시는 지난 3월 국방부와 협의를 통해 오는 2017년까지 무등산 정상 방공포대 이전을 완료하고, 2018년부터는 무등산 정상을 상시 개방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했지만, 이후 상황은 더욱 악화됐다.

국방부에서 지난 8월 방공포대 이전은커녕 지난 2011년 이후 매년 개최했던 무등산 정상 개방 행사마저 전면 불허하겠다는 입장을 무등산 사무소와 광주시에 통보한 것이다.

지난 2011년부터 추진해온 평동 군 훈련장(박격포 사격장·동백훈련장) 이전 사업도 제대로 이행될지 미지수다. 이전 대상지가 장성 군종합훈련장으로 정해진 이후 장성지역내 반발 여론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시는 내년 12월까지 이전 합의각서 등을 체결하고, 오는 2017년 12월까지 이전 사업을 완료한다는 계획이지만, 장성군의 동의가 없는 한 실현 가능성은 없어보인다.

군 공항 이전 계획도 현재까진 계획대로 순항중이지만, 타 지역의 반발이 예상되는 이전 후보지 선정 등 넘어야할 산이 너무 많다.

광주시의 한 관계자는 "군 이전 사업을 직접 챙겼던 광주시장과 국방부 장관마저 바뀌면서 관련 사업의 추진 동력이 떨어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 軍시설 이전 현황

- ·31사단
  - 구두합의. 강운태·김관진 떠난 뒤 무산위기
- ·무등산 방공포대
  - 진전없고 정상개방 행사도 불허
- ·평동 군훈련장
  - 장성군 반발에 난항
- ·광주 군 공항
  - 이전 후보지 선정도 못해

전남에 '1인 소방서' 41곳 ▶6면
광주 '임대왕' 집 2312채 보유 ▶8면

학교설립 60주년
기독교 명문대학
광신대학교
학부 605-1114, 대학원 605-1115

金·銀 가른 찰나의 승부 … 박경두 광주·전남 첫 메달

지난 20일 경기도 고양체육관에서 열린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펜싱 에페 남자 개인 결승에 해남 출신의 박경두(30·해남군청·오른쪽)와 정진선(30·화성시청)이 접전을 벌이고 있다. 박경두는 이 경기에서 정진석에게 아쉽게 패해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광주·전남 소속 선수단의 첫 메달이다. /인천=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전남·전북 상생정책협 연내 가동

광역단체장들 5년만에 회동

광주와 전남, 전북 등 호남권 3개 광역자치단체장이 호남 상생을 위해 올해 내에 호남권정책협의회를 재가동하기로 합의했다. 호남권 3개 자치단체장이 만난 것은 지난 2009년 10월 호남권 광역경제발전위원회 출범 이후 5년 만이며, 호남권정책협의회는 지난 2008년 11월 이후 중단된 상태다.

〈관련기사 3면〉

21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윤장현 광주시장과 이낙연 전남지사, 송하진 전북지사는 지난 19일 오후 국회귀빈식당에서 만나 호남권 상생발전방안을 논의하고 3개 항에 합의했다.

이들은 우선 상생발전을 위해 불필요한 경쟁을 자제하고 최대한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광주·전남이 전북 새만금 사업과 국제공항 건설 등 전북이 추진중인 대형 프로젝트에 대해 전남 J프로젝트 및 광주·무안공항 활성화 등과 충돌한다는 이유 등으로 반대하면서 호남권 상생 협의가 어긋났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실제 호남권은 영남권과 함께 국가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지만, 민선 시대 들어 각종 대규모 개발사업을 놓고 치열하게 경쟁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들 3개 자치단체장은 또 2004년부터 2008년까지 가동했던 호남권정책협의회를 연내에 다시 가동하기로 했으며, 오는 10월 5일 전북 순창에서 다시 모여 호남권 상생발전을 위한 문제를 논의하는 등 활발히 접촉하기로 합의했다.

민선 6기 들어 광주·전남에서 불기 시작한 상생기류에 전북까지 합류하기로 함에 따라 MB-박근혜 정부로 이어지고 있는 '호남 소외'를 끊고, 호남권이 재도약할 수 있는 발판 마련이 가능할지 주목된다.

3개 시·도가 지금 당장 해결해야할 공동과제만도 KTX호남선 완전 개통에 따른 수도권과의 경쟁력 확보, 광주 문화전당～전주 한옥마을～여수 세계박람회장 등을 연계하는 공동 관광벨트 구축 방안, 전남 J프로젝트와 전북 새만금개발 상생방안, 광주·무안·군산공항 운영문제 등 일일이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한편 광주시와 전남도는 3개 시·도의 연대에 앞서 내달 1일 나주빛가람혁신도시에서 광주·전남 상생발전위원회 출범식을 갖는다. 이날 광주·전남발전연구원은 상생발전 전략을 주제로 학술 심포지엄 등도 개최할 계획이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고교생 총잡이 김청용 2관왕

광주·전남 선수들 銀2·銅1

박태환 자유형 200m 동메달

인천 아시안게임 이틀째인 21일 사격에서 무서운 고교 신예 김청용(17·흥덕고)이 2관왕에 오르며 최고의 스타로 떠올랐다.

〈관련기사 18·19·20면〉

김청용은 이날 인천 옥련국제사격장에서 열린 사격 남자 10m 공기권총 개인전 결선에서 201.2점을 기록, 199.3점을 쏜 중국의 팡웨이를 1.9점 차로 제치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앞서 열린 이 종목 단체전에서는 진종오(35·KT), 이대명(26·KB국민은행)과 함께 1744점을 쏴 금메달을 합작, 한국 선수단의 대회 첫 2관왕에 올랐다.

펜싱의 정진선(30·화성시청)은 남자 에페에서 라이벌인 해남 출신 박경두(30·해남군청)와 맞붙어 15-9로 승리, 첫 금메달을 선사했다. 이라진은 여자 사브르에서 정상에 올랐다. 또 마장마술은 대회 5연패를 달성했다.

빅 이벤트로 기대를 모았던 박태환은 수영 자유형 200m 결승에서 아쉽게 동메달에 그쳤다.

한국은 21일 오후 8시 현재 금메달 7개, 은메달 7개, 동메달 9개로 중국(금 10, 은 6, 동 9)에 이어 종합 2위를 달리고 있다.

/인천=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 오늘의 인천아시안게임(22일)

09시	**사격** 여자 10m공기소총, 25m권총
09시	**수영** 남자 배영 50m, 개인혼영 200m, 계영 800m 여자 접영 50m, 자유형100m, 평영 200m
12시	**배드민턴** 남자부 단체 준결승
18시30분	**야구**조별예선(한국 vs 태국)
14시	**유도** 남자 90kg급, 100kg급, 100kg이상급 여자 78kg급, 78kg이상급